

글을 쓰는 것은 치유의 한 방법이다.

Writing is a way of processing our lives. And it can be a way of healing. (Jan Karon)

글쓰기는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을 처리하는 방법의 일종이며, 치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얀 카론)

얼마 전 인사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같이한 지인과 식당 사장님이 잘 아는 사이라 저도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인사를 나누다 보니 식당 사장님이 황태영이라는 수필가였습니다. 식당 이름도 ‘희여골’이라고 좀 특이했는데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마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들레 면과 유황 생돼지 전문점’이라는 간판이 이색적이었습니다.

만남 기념으로 그분께서 쓰신 <편지가 꽃보다 아름답다>는 책 한 권과 그분이 개발했다는 유황 미용비누 한 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식사 대보다 받은 선물 값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기쁨을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꽃보다 더 몽클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있다. 마음을 담

은 친필 편지다. 친필 편지는 메마른 세상에 그늘 같은 쉼터가 된다.”

그런데 요즘은 첨단정보기술의 산물인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및 다양한 SNS 등을 이용한 메시지의 사용으로 친필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필 편지를 쓰게 되면 더 많이 생각하여 표현하게 되고 더 많이 다듬어 쓰게 되는데 말이지요. 아마도 황태영 작가가 ‘편지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한 이유가 아닐는지….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처 되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고, 마음 아파하며 가슴속에 묻고 있던 커다란 돌덩이 같은 응어리가 따스한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도 생깁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글을 써 보세요. 자신의 삶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